

2012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믿는 이들을 향한 그분의 어떠하심

메시지 2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경: 요 1:1-2, 4, 14, 29, 33, 51, 3:16, 4:14,

5:17-18, 10:30-33, 14:7-20, 15:1, 5, 26, 20:22, 28

I.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 A. 공관 복음—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따른 물질적인 관점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 B. 요한복음에 따른 비밀한 관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II. 요한복음의 내재적인 계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다. 성경에 있는 어떤 책도 요한복음처럼 너무나 풍성하며 너무나 분명하고 내재적으로 삼일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은 없다—요 1:1-2, 5:17-18, 10:30-33, 14:9-11.

- A.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요 1:1.
 - 1.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요 20:28.
 - 2.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롬 9:5.
 - 3.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한다—골 2:9.
- B.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본질에 따르면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삼일성의 방면이 있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시고, 그 영은 아들의 실재이시다—요 14:16-18.
 - 1.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신다—사 9:6.
 - 2. 마지막 아담이신 아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 3. 주님은 그 영(고후 3:17)이시며 주 영(고후 3:18)이시다.
 - 4.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라는 것에 대한 강한 증거이다.

III.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요 1:1, 4, 29, 33, 51, 2:19, 3:14, 29, 4:14, 6:35, 8:28, 58, 9:5, 10:9, 11, 11:25, 14:6.

- A. 요한복음 1 장은 영원의 두 부분을 계시한다. 이 두 부분 사이, 곧 시간의 다리 위에서 그리스도는 다섯 단계들 안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되셨다.
 - 1. 영원 과거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창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설명과 표현으로 계시되셨다—요 1:1-3.
 - 2.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고 육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요 1:14.
 - 3.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심 안에서 그분은 구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셨다—요 1:29.

4. 비둘기 같은 그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심으로써 그분은 변화에 있어서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셨다—요 1:33.
 5. 땅을 하늘에 연결하는 사다리로서 그분은 건축에 있어서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셨다—요 1:51.
 6. 그리스도의 이러한 다섯 단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 곧 ‘미혼자이신’ 하나님, 육체되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합병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 B.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분배하심을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요 3:16.
1.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며,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체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2. 우리가 그분의 아들, 곧 그분의 체현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을 위해서이다.
 4.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분배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것은 신성한 분배에 속한 문제이다.
- C.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원전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을 주신다—요 4:14.
1. 이 구절은 세 단계 안에서 흐르시는 하나님을 계시한다. 아버지는 원전이시고, 아들은 솟는 샘이시며, 그 영은 흐르시는 강이시며 더욱이 그분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목표로 삼으신다.
 2.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의 총체를 가리키며, 신성한 생명은 온 우주 안에서 유일한 하나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다.
 3. ‘안으로’로 번역된 헬리어 전치사는 그 의미가 다양하다. 여기서는 종착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종착지이고 새 예루살렘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총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를 의미한다.
 4.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열쇠이다.
- D. 요한복음 15 장에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시다—요 15:1, 5, 26.
1. 15 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의미 깊고, 심오하며,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아들 하나님 안에 집중되고 체현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은 그 영 하나님 안에서 실재화되었다—요 15:1, 26.
 2. 이제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졌고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증언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과 창시자이시며 아들 하나님은 중심과 나타남이시고, 그 영 하나님은 실재이자 실재화이시며 가지들은 몸, 곧 단체적인 표현이다—요 15:5.
 3.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며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표현한다—요 15:8.
 4. 그 결과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선민과의 신성하고 인간적인 조성체,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요 14:7-20.

- E. 요한복음 20 장에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요 20:22.
1.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고후 3:17.
 2.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3.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며(요 1:12), 우리가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아들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영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5:45 하.
 4. 요한복음 1 장 12 절에서 아들을 영접하는 것과, 20 장 22 절에서 그 영을 영접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별적인 영접이 아니다. 오늘날 아들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 영을 영접하는 것이다—고후 3:17.
 5. 아들을 영접할 때 우리는 아버지도 영접한다—요일 2:23, 요 10:30, 14:11.
 6.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의 끝에서는 그분의 표현과 영광스럽게 됨을 위하여 믿는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그 영,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되셨다—요 1:1, 4, 20:22.